않았다. 결국 못 참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있었지만, 질질 풀린 끈이 거슬려서 하나도 들리지 풀린 길 잘 못 본다. 영선이 뭐라고 계속 말하고 묶는 거지. 어떻게 저게 괜찮지. 나는 신발 끈이 괜찮다며 고양이 얘기를 이어갔다. 왜 다시 안 표 돌리셨어요." 그녀는 신발을 힐끗 보더니 네.. 고양이 키웁니다. 그런데 부정장님 신발 구겨 신은 데다, 신발 끈까지 풀려 있었다. "아.. 영선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컨버스 하이를 고개를 ヹ ぐ이고 짧게진 커를 타지작거러는데,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진다. 그 마음을 숨기려 아딘데 괜히 부끄러워져 귀까지 돌아올랐다. 난 되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 비밀을 들킨 것도 써있던데." 아뿔싸. 영선이 내 자기소개서를 "고양이 키운다면서요. 자기소개서에

부드러웠다.

"저.. 신발 끈을 대신 묶어 드려도 될까요..?" 영선은 입술을 삐죽이며 그러라고 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풀린 끈을 단단하게 묶었다. 그녀는 내 머리 꼭대기를 내려다보며 신발 끈을 이렇게 세게 묶은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의 나는 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민간인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각 잡힌 인간이었다. 위계질서가 확실한 곳에서 권위적인 상사들에게 복종하며 일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대충이고 엉성한 김영선 부점장님이 이상하면서도 어쩐지 계속 신경 쓰였다.

신경 쓰여서 자꾸 봤다. 자꾸 보니까 의외의 모습들이 보였다. 헐렁하게만 보였던 영선은 일할 때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다. 눈앞의 주문이

쭈그려 앉아 문희와 양말이를 쓰다듬었다. 어색한 정적 속에 고양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못해 고개만 끄덕였다. 정말로 할 말이 없었다. 그렇구나. 그 말을 듣고도 적당한 대답을 찾지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짜 아래로 옮겼어요." 지금 무자에들이 가는 데데 내가 취돼 여기서 내 표정을 눈치챈 영선이 말했다. "아, 여기는 영선이 살던 기숙사도 아니었다. 불음표 가득한 뽐내는 진가? 심지어 거긴 내가 살게 될 기숙사도, 맞춰졌지만, 여전히 의아했다. 왜 보여 주는 거지? 고양이들이었다. 그제야 머릿속의 퍼즐들이 문희와 양말이. 남자 직원 기숙사에서 얹혀사는 경신이 데려간 곳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었다. 양말인지 그게 도대체 될지는 속으로만 생각했다. 일단 알겠다고 했다. 문이랑 양말인지 무늬랑 않았지만, 계속 물어보면 사오징 같을까 봐 함했다. 두 번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잠이 잡히지

밀려도 당황하지 않았고, 기계가 말썽을 부리면 빠르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냈다. 목이 축 늘어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서 저런 침착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손님을 대할 때도 대체로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과하지 않았고, 가끔 상식 밖의 손님이 나타날 때면 먼저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했다. 이 모든 걸 신발을 대충 구겨 신고 머리에 모자를 삐뚤게 얹은 채로 해냈다.

무엇보다도 의외였던 건 그녀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걸 알았을 때 왠지 모르게 실망스러웠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럴거면 고양이를 보여주지나 말지. 나는 설렜었는데.

영선은 짜증 나게 다정했다. 짜증 나게 자꾸만 내 방에 놀러 왔다. 내 옆에서 쪼잘 쪼잘 떠들어댈

되돈자, 영선은 "무늬랑 양말이요."라고 다시 도년 "(Il" 'Yh' '형옷 | K글어알 잘 | KJ말' 승무 정도 교육을 마친 영선이 내게 말했다. 뭘 소리지. "이제 문이랑 양말 보러 갈 거에여"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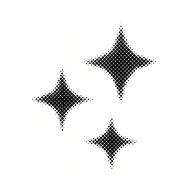
쇄골을 보지 않으려 눈동자를 이러저리 굴렸다. 리고 나온건가... 생각하며 살짝 민망한 기분으로 ..을옷땀' ᆣ나 ᆣ씷 Krevo총 토별 를츠타무 패딩을 벗으니까 그게 다 보였다. 목이 늘어난 부운이 다 들어져 책골 한쪽이 드러나 있었다. 페잉 잔에 찬풀터를 한 장 입고 있었는데, 목 고개를 끄럭었지만, 사실 영선의 쇄골에 시선을 ↑ → □ 를 등통 따라다 □ 성 등 ○ 등 등 성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교육을 많은 영선이 카페 구석구석을 소개하며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신입

上说다.

살포시 얹은 모자까지. 부짐장의 위엄 따윈 없어 그리고 쓴 건지 쓰다 만 건지 모르겠는 머리 위에 점은 대한 이목구비와 투명 뿔테 안경. 뽀얀 피부. 균과 뭄집에 비해 지나치게 커다란 패엄, 진한 데 힐렁했다. 첫눈에 봐도 그랬다. 반쯤 풀린 신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어딘가 아홉 명의 직원 중 두 번째로 광이었으나, 꽤 직원이었고, 영선은 그 카페의 부짐장이었다. 처음 만났다. 나는 이제 막 일하러 온 신입 2019년 겨울, 우리는 우도의 한 카페에서

생각해 돈 적은 한 번도 없다. 상인데다가 해동도 어른스럽지 않아서 언니라고 사귀고 있다. 나보다 두 살 연상인데, 좀 귀염 나는 삼십 대 중반의 여성 김영선과 2041일째

풀칠면 1



사랑과 방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호연지



것 같았다. 좋아하는 마음을 눌러가며 적당히 밀고

을 적이 없으니 너무 들이대면 도망갈 수도 있을

충분히 가까워지진 했지만, 영선은 여자와 사귀어

좋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는데 요새는 선선해져서 저녁에 걸으면 기분이 그 후로 2041일이 지났다.

일 바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밤이었다. 되냐고 물었다. 알코올의 힘은 대단하다. 심장이 일을이 보였다. 고리다 말을 잡고, 키스해도 다는 오랫동안 연습했던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다는 소행동안 연습했던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다는 소행동안 연습했던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다는 소행동안 연습했던 '좋아해.' 라는 말을 할 어린는 술에 취해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다. 다는 오랫동안 연습했던 '좋아해.' 라는 말을 할 어린는 술에 취해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다. 어린는 술에 취해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다.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다. 함을 빌렸기 때문이다. 취해서 고백하는 건 진짜 역을 빌렸기 때문이다. 취해서 고백하는 건 진짜 역상에게 고백한 날이 함은 대단하다. 심장이 역산에게 고백한 날이 함은 전통하다. 영산은 나와 달렀다. 그녀의 이별이 있고 얼마지나지 않아 카페 직원들은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나게 되었는데, 내가 일사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여행이라 나는 함께 갈 수 없었다. 5박 6일의 일정 동안, 영선은 틈만 나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자기 하루를 생중계하듯 어릴 갔는지, 뭘 먹었는지, 될 었는지를 알려줬다. 내가 없으니까 하나도 됐다. 종아라는 티를 너무 내서 오히려 내가 먹다. 수영소리울 정도였다. 어떻게든 마음을 참기면 되어가 않다면, 나중에 꼭 둘이서만 같이 오자고도 생한스러울 정도였다. 어떻게든 마음을 요한다. 내가 없으니까 하나는 점을 이렇는 지 않는 것 같았다. 대가 없다며, 나중에 꼭 둘이서만 같이 오자고도 생한스러울 정도였다. 어떻게든 마음을 요하지 않는 이 살으로 함께 다. 하나는 데 이상 하다. 그녀의 솔직하고 주의 한 사람이 다음 살이는 되어 되었다. 이 생한 나가 보고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솔직하고 주의 원칙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솔직하고 주의 전하고 함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11억/0葵 PM고 되어 국무명 뚜양사

- 扫於品

친구용 원래 저러나,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저래도 아끼는 부랑 직원인가, 딱 친구 정돈가, 쟤는 부정장님은 나를 뭐로 생각하는 결과, 그냥

영선이 갑자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엑 뭐야 느끼해."

눈썹을 찌푸리며 영선을 쳐다보니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영선은 이렇게 느끼한 행동들을 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걸 즐긴다. 질 수 없어서 "우리 누가 누가 더 느끼한가 대결하자"고 제안했다. 내 말에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넷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 지을듯한 표정을 짓고 검지와 중지를 겹쳐 내 볼을 톡 하고 치며 말했다. "장난꾸러기"진짜 느끼하고 재수 없었다. 어떻게 저런 걸 1초만에 생각하지. 난 정말 김영선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코를 톡 쳐줬다. 영선은 느끼함에 몸부림치며 깔깔깔 웃다가 방구를 북! 하고 뀌었다. 민망해할 법도 한데 영선은 당당하게 말했다. "원래 사랑과 방구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거야." 영선은 어쩌다 한 번씩 저렇게 정답같은 문장을 내뱉어 예고없이 나를 놀라게 한다. 방구 같은 인간. 우리는 사랑과 방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걷고 또 걸었다.

>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글쓴이 호연지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풀칠면 1